

보 도 해 명 자 료

(‘18. 10. 22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줄이고 또 줄이고...정부, 태양광 발전 비용 축소 의혹

(‘18.10.22, 조선일보)

1. 기사내용

- ☐ 정부의 원전 비중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위해 한국전기연구원 보고서에서 태양광 발전 비용을 의도적으로 축소

* 동 보고서에서 국내 여건상 구축이 불가능한 30MW 이상 태양광 발전소를 기준으로 건설비용을 계산하였으며, 산업부 고위급 인사와 논의한 이후 태양광 발전 외부 비용을 보고서에 포함하지 않기로 하였음

2. 동 기사에 대한 정부 입장

- ☐ 전기연구원에서 작성한 ‘균등화 발전원가 해외사례조사 및 시사점 분석’ 보고서의 태양광 건설비용은 30MW가 아닌 1MW*를 기준으로 작성

* ‘18.9월말 기준, 전국에 1MW이상 태양광 발전소 620곳이 운영 중

- 산업부가 실시한 태양광 발전소 지원사업 시장조사는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30kW 사업을 기준으로 작성, 용도·규모 면에서 일반 발전 사업에 비해 건설비용이 높게 산정되었음
- 동 보고서에서 사용한 3.3㎡당 토지 비용 6만원은 ‘16~’17년 전남 일부 지역 실거래가와 사업자 조사자료를 바탕으로 적용한 것으로 공시지가가 아님

- ☐ 현재 강원 영월에 39MW 태양광 발전소가 운영 중이며, 전남 영암에서도 92MW 태양광 발전소의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9월에 승인하는 등 발전 6사 등에서 30MW 이상 대규모 태양광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발굴·추진할 예정

- ☐ 아울러, 동 보고서 관련, 산업부 고위급 인사와 태양광 발전 외부 비용을 보고서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논의한 사실 없음

※ 문의 :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보급과 전병근 과장 (044-203-5360)
황인택 사무관 (044-203-5374)
전력진흥과 남경모 과장 (044-203-5260)
조영길 사무관 (044-203-5261)